

광주 동구복싱팀, 24년 만에 전국대회 '금빛' 부활



24년 만에 재결성된 광주 동구 복싱팀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동구복싱팀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서 올해 새로 합류한

1996년 해체됐으나 민선 7기 재창단...1년간 담금질

대한복싱협회장배대회 금메달 1개·동메달 2개 획득

56kg급 이행석(23)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재창단 시작부터 함께한 69kg급 이동진(29), 64kg급 한영훈(24) 선수는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52kg급 최현태(26) 선수는 아쉽게도 8강에 그쳤다. 지난해 1월 팀 창단 후 첫 입상 성적이다.

동구복싱팀은 1996년 해체됐으나 민선 7기 들어 직장운동경기부 재건과 국내 권투 부흥을 약속하며 복싱부를 재창단했다.

이들은 평소 이른 오전 6시 30분부터 용산체육공원에서 로드워크를 시작으로 오전엔 체력운동, 오후엔 실전 위주의 스파링 그리고 야간에는 웨이트와 개인 훈련 등의 강행군을 소

화하며 '명가 재건'을 위해 지난 1년간 담금질을 해왔다.

그러나 동구복싱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공식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 기회를 잡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번 대회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새 역사를 썼다.

임택 동구청장은 "과거 광주복싱은 올림픽 등에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고, 그 중심에 동구복싱선수단이 있었다"면서 "이번 수상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광주시민과 동구민에게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8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 나섰다. (사진=MLB프레스박스 캡처)

'타격 데뷔' 김광현 "정신없었던 하루"

"3이닝만 던져 아쉬워" 승패 없어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후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광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3이닝 5피안타 4탈삼진 1볼넷 3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9-3으로 앞선 4회초 타석때 대타와 교체돼 승패 없이 경기를 마쳤다. 김광현이 조기 강판됐지만, 세인트루이스는 화끈한 타선을 앞세워 9-4로 승리하고 2연패를 끊었다.

김광현은 지난달 스프링 트레이닝 중 허리 통증을 느껴 시즌 출발이 늦어졌다. 부상을 털어내고 다시 몸을 만들면서 개막 후 2주가 지나야 마운드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1회에만 30개의 공을 던지는 등 고전했고, 최고 구속도 90.2마일(약 145km)에 그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김광현은 "선발 투수에게 1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회에 계속 안 좋은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집중력도 필요한 것 같다. 2회에도 계속 집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68구만 던진 김광현은 예상보다 빠르게 마운드를 내려갔다. 그는 "4회에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던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었다. 충분히 몸 상태는 괜찮은 거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직 구속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김광현은 "구속이 안 나오는 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비디오 분석을 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다. 시즌을 치러가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김광현은 이날 타석에도 들어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맞는 김광현이 타석에 선 건 처음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셔널리그에서도 지명타자 제도를 실시하면서 타석에 설 기회가 없었다.

3회에만 두 타석을 소화했다. 선두타자로 날카로운 파울 타구를 만든 후 투수 땅볼로 물러난 그는 2사 1, 2루에서 또 다시 타석 기회를 얻었다. 상대 선발 맷 무어의 폭투로 이어진 2사 2, 3루에서 바뀐 투수 조조 로메로에게 3루수 쪽으로 타구를 날렸다.

그러나 3루수 알렉스 봄의 짧은 송구를 1루수가 놓쳤고, 김광현은 1루에서 세이프했다. 그 사이 3루 주자도 득점했다. 하지만 김광현의 안타가 아닌 3루수 실책으로 인정돼 김광현의 타점은 기록되지 않았다.

김광현은 두 번째 타석에 대해 "베이스를 못 밟아서 아웃인 줄 알았다. 출루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며 씩스러운 듯 웃었다.

3회 타자일순으로 길어진 공격에 대해서는 "졸랐다. 3아웃 중에 하나만 당해서 다행이다. 만약 실책이 아니고 아웃을 당했다면 3아웃 중에 2개나 내가 하는 거였다. 3아웃만 당해 다행이다"며 멋쩍어했다. 이어 "이닝을 마치고 들어와 쉬는 게 아니라 내 타순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바쁜 경기에 적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타격 후 투구'의 리듬에도 빨리 적응해야 한다.

김광현은 "너무 바빴다. 처음 타석에 들어가서 공격과 수비를 다 하다보니 정신없던 하루였다. 앞으로 이런 경기를 많이 할 거니까 잘 적응해서 다음 경기부터는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는 피칭을 하겠다. 치는 것보다 투구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화순 전남기과고 복싱부도 종합 2위 쾌거

금2·은1·동1개 수확...출전 4명 모두 메달 획득 복싱 메카 위상 높여

화순 전남기술과학고 복싱부가 2021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복싱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기과고 복싱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복싱대회에 참가해 금2, 은1, 동1 개를 획득해 종합 2위에 올랐다.

고등부 남자 부문에 참가한 박수인(전남기과고3) 선수는 -60kg에서 금메달, 임형욱(전남

기과고3) 선수는 -81kg에서 금메달, 박성현(전남기과고2) 선수는 -91kg에서 은메달, 서상화(전남기과고3) 선수는 -69kg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기과고 복싱부는 출전했던 선수 4명 모두 메달을 획득해 '출전 전 중목 석권하며' 복싱 메카 화순의 위상을 높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황영욱 감독과 박지선 코치의 열정과 선수들의 성실한 훈련으로 일관 성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리디아 고, 3년 만에 LPGA 투어 정상

롯데첸피언십 박인비·김세영 공동 2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3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타이틀을 품에 안았다.

리디아 고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후우섬 카롤레이의 카롤레이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롯데첸피언십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28언더파 260타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공동 2위 그룹을 무려 7타차로 따돌리고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8년 4월 LPGA 메디힐 챔피언십 이후 4년 만의 우승이다. 통산 16승째.

10대 시절부터 '천재 소녀'로 통하던 리디아 고는 만 18세에 10승을 채우면서 LPGA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2016년에도 2승을 보며면서 꽃길만 걸을 듯 했던 리디아 고는 메이힐 챔피언십 우승 후 슬럼프에 빠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서서히 옛기량을 회복하기 시작한 리디아 고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리디아 고는 올해 5번의 대회에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를 기록 중이다.

리디아 고는 보기없이 버디만 7개의 깔끔한 하루를 보냈다. 9번홀부터 4연속 버디로 경쟁자들의 추격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리디아 고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면서 "다시 우승자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 라운드는 비교적 덩달하게 임했다. "스스로에게 많은 부담을 줬던 것 같다"는 리디아 고는 "어제는 정말 잘 쳤다. 그저 나에게 '운명은 이미 정해져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웃었다.

박인비와 김세영은 넬리 코다(미국), 리오나 메과이어(아일랜드)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신지은이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김아림과 양희영이 1타차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2-4라운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한 것 같다. 특히 오늘 17,18번홀 버디를 잡아 굉장히 좋다. LA 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박인비와 김세영 등은 다음 주 LA에서 열리는 휴렛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에 출격한다.

김학범호 운명은...21일 도쿄올림픽 조 추첨

한국, 일본·브라질·아르헨티나와 1번 포트 속해 조별리그서 만나지 않아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이후 다시 한 번 입상을 노리는 한국 축구의 운명을 21일 점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오는 21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2020 도쿄올림픽 조 추첨을 연다. 16개국이 출전하는 남자 축구에서 한국은 개최국 일본, 남미의 강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1번 포트에 속했다.

총 4개 포트에 나뉘어 조를 배정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는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는다.

멕시코, 독일, 온두라스, 스페인이 2번 포트, 이집트, 뉴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번 포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프랑

스, 루마니아가 4번 포트에 배정됐다.

조 편성 원칙에 따르면 같은 대륙 연맹 소속 국가는 한 조에 들어갈 수 없다.

4번 포트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프랑스, 루마니아 중 하나와 한 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번 포트의 독일, 스페인은 피하게 된다. 멕시코 혹은 온두라스가 2번 포트에서 합류한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23세 이하(U-23) 연령대의 전력이 탄탄하다.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강호다.

온두라스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8강에서 대결을 펼쳤다. 한국이 0-1로 패했다. **뉴시스**



프로축구 수원 삼성 김현목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박건하 감독, 보좌했던 홍명보 올렸다

수원, 울산에 3-0 완승

프로축구 K리그1(1부) 수원 삼성이 신예들을 앞세워 선두 경쟁 중인 울산 현대를 압도하며 값진 승리를 신고했다. 박건하 수원 감독은 과거 대표팀에서 감독과 코치로 한솥밥을 먹으며 보좌했던 홍명보 울산 감독에 빼어난 패배를 안겼다.

수원은 1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에서 신예 강현목, 정성빈의 활약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

최근 리그에서 1무3패로 주춤했던 수원(4승3무3패 승점 15)은 5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하며 3위로 경쟁 뛰어올랐다.

울산(6승2무2패 승점 20)은 연속 행진을 3경기에서 마감했다. 충격적인 대패다. 10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선두 전북 현대(승점 23)와 승점차가 더 벌어질 위기다.

수원은 리그에서 부진했지만 지난 14일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거둔 승리로 분위기를 바꾼 게 주효했다.

특히 시즌 초반 중요한 분수령에서 신예들이 빛낸 경기였다.

2년차 강현목은 1-0으로 불안하게 앞선 후반 초반 흐름을 이어가는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신인 정성빈은 후반 24분 승부에 쐬기를

박은 골을 기록했다. 공교롭게 정성빈의 세 번째 골을 도운 이가 김현목이다.

김현목은 1골 1도움으로 활약했다. 2002년생인 정성빈은 벌써 3호골이다.

또 이날 경기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두 사령탑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홍명보 울산 감독과 박건하 수원 감독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올림픽 메달(동메달)을 합작했다. 당시 홍 감독이 감독, 박 감독이 코치였다.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둘은 A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겨 2014 브라질월드컵까지 감독-코치의 인연을 이었다. 긴 시간이 흘러 K리그 사령탑으로 첫 대결을 가졌는데 박 감독이 먼저 웃었다.

수원은 경기 시작 13분 만에 터진 김건희의 선제골을 잘 지켜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 흐름을 장악했다. 강현목이 1분 만에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페널티 박스 정면으로 흐른 공을 오른발로 감각적으로 때려 조현우(울산)를 뚫었다.

후반 24분에는 정성빈과 김현목이 골을 합작하며 울산의 추격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역습 기회에서 패스와 크로스를 주고 받았고, 정성빈이 몸을 날리는 헤더로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골을 터뜨린 김건희, 정성빈, 강현목은 모두 수원 유스 매달고 출신이다.